

2054가구 대단지에, 신풍역 더블역세권... 방문객 줄이어

부동산 현장 르포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견본주택

35층 16개동... 일반분양 477가구
강남까지 도보 10분대로 이동가능
신안산선 개통시 여의도 3정거장
51㎡ 면적 분양가 11.3억부터
30일 특공, 31일 1순위 청약 진행

지난 주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공급하는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오픈 시간 전부터 대기 줄이 보이고 청약 상담석도 꾸준히 차 있었다. 서울 도심 내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에 더블 역세권 입지까지 갖춘 점이 수요자 관심을 끌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는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2054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대단지다. 이 가운데 47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용면적별로는 ▲51㎡ 150가구 ▲59㎡ 202가구 ▲



'더샵 신길센트럴시티' 견본주택 59㎡ A타입 거실. /성재리 인턴기자

74㎡ 72가구 ▲84㎡ 53가구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최대 강점은 입지다. 지하철 7호선과 신안산선(예정)이 지나는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강남까지 10분대로 이동 가능하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3정거장만에 갈 수 있다.

전용 84㎡ A타입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을 선보였다. 침실과 거실이 모두 한 방향에 위치하는 게 아니라 현관

기준 좌우로 공간이 나뉘는 구조다. 입구 오른쪽에 자녀방 등 침실 2개가 배치되고, 반대편에는 거실과 주방, 안방이 자리한다. 30평대 규모인 만큼 확장된 거실과 방, 드레스룸 크기를 실감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에 적용된 침실 불박이장은 옵션을 추가해야 하고, 복도 팬트리가 따로 없어서 수납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도 나왔다.

중소형 트렌드를 반영한 전용 51㎡A

구조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역시 판상형이지만 선택 옵션에 따라 공간 활용도가 크게 달라진다. 기본적으로 침실이 3개인 구조인데, 옵션을 적용하면 침실 하나가 빠지는 대신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생긴다.

현장을 찾은 30대 예비 신혼부부는 "원래 51㎡를 보러 왔는데 실제로 보니 공간이 작게 느껴져서 59㎡로 마음이 바뀌었다"며 "더 큰 평형은 가격대가 부담스러워서 신혼부부한테는 51㎡, 59㎡ 정도가 적정 가격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라는 위치는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좋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중년 부부는 "신혼부부라면 51㎡ 평형이 딱 좋을텐데, 아이들이 있어서 방 2개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59㎡ 이상을 보고 있다"며 "신안산선이 뚫리면 교통이 더 편해진다는 점과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라는 점이 관심을 끌었다"고 했다.

더샵 신길센트럴시티의 분양가격은 ▲51㎡ 11억3000만~12억5000만원 ▲

59㎡ 13억2000만~14억6000만원 ▲74㎡ 15억2000만~16억8000만원 ▲84㎡ 16억8000만~18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의 실거래가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길동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신길센트럴자이'의 경우 지난 달 59㎡가 17억1500만원에, 84㎡는 18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분양 관계자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기반으로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인근 대장 단지 실거래가 대비 분양가도 경쟁력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청약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해당지역 접수가 진행된다. 다음달 1일 1순위 기타지역, 2일 2순위로 이어진다.

청약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만 19세 이상 세대주로,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및 예치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성재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10억 로또 청약... 교통·학군·인프라 '3박자'

부동산 현장 르포

'아크로드 서초' 현장 가보니

지상 39층 16개동 1161가구 규모
일반물량 56가구... 2029년 입주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역인 강남역에서 5분 출구로 나와 10분 안팎 걸으면 서초구 '아크로드 서초' 공사 현장이 나타난다. 교통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진 데다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이상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 대기자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단지다. 입주가 오는 2029년 예정인 만큼 현장은 아직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견본주택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내부 평면 등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초동 일원에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지상 39층, 아파트 16개 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 규모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 서초 공사 현장. 1단지와 2단지가 도로로 단절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일반분양 물량은 56가구에 불과하다. 타입도 전용 59㎡만 나왔다.

아크로드 서초의 가장 큰 장점은 교통과 학군, 생활인프라, 자연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질 것이 없는 입지다.

단지는 강남역까지 직선거리로 약 600m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강남을 대표하는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경부고속도로(서초IC) 등으로 접근하기 쉽다. 강남역에서 다양한 광역, 일반버

스를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아크로드 서초는 서이초와 맞닿아 있으며, 길 건너편에는 서운중이 위치한다. 편의시설로는 강남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상업시설을 비롯해 예술의 전당, 강남세브란스 병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한전아트센터 등이 모두 단지 반경 2km 내에 자리한다.

다만 1단지와 2단지가 왕복 4차선 도로인 사임당로로 단절되어 있다. 1단지가 서운중 방향, 2단지가 서이초 쪽이다.

분양가는 평균 3.3㎡당 7800만원선으로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가 18억6490만원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주변 시세를 크게 밀도는 '반값 아파트' 수준이 됐다.

청약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달 1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재당첨제한 10년에 전매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2년이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미래에셋생명, 변동성 장세 '분산투자' 제시

'MVP 포트폴리오' 선보여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분산투자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인공지능(AI)과 성장 자산에 더해 방산·인프라·원자재·금 등을 함께 담은 MVP 포트폴리오를 변동성 장세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자사 MVP 포트폴리오가 변동성 장세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투자 전략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일 기준 MVP 포트폴리오 구성은 ETF글로벌AI테크(N390) 35%, 글로벌성장산업(N4B0) 17.5%, 국내성장형(N1A0) 15%, 골드투자형(N920) 5% 등이 중심이다.

이번 포트폴리오 설명의 핵심은 성장성과 방어력을 함께 담았다는 점이다. 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글로벌성장산업재 펀드에는 글로벌 엑스 디펜스 테

크(Global X Defense Tech) ETF(SHLD), 글로벌 엑스 US 인프라스트럭처(Global X US Infrastructure) ETF(PAVE), 한화천연자원펀드 등이 포함돼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통해 방산, 인프라, 원자재 관련 자산 비중을 20% 이상 확보하고 있어 전쟁과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포지션을 일정 부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쟁 발발 직후 SHLD ETF는 약 2.8% 상승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위탁한 미래에셋생명 AI웰스테크운용본부장은 "방산, 인프라, 원자재, AI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을 함께 담은 MVP 포트폴리오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방어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며 "변동성이 커진 시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신한금융, 미소금융재단에 1000억 출연

청년·지방 위기극복 지원 일환

신한금융그룹이 38개 미소금융재단 운영자 중 최초로 100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 27일 서민금융진흥원, 신한미소금융재단과 '청년 및 지방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1000억원의 기부금 출연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출연은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고객의 자립과 미래 준비까지 연결하는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경영'을 구체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한금융은 총 1000억원의 출연을 통해 서민금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용금융을 지속 가능한 실행 체계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신한금융은 출연금 중 200억원으로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게 자산형성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

이는 부채 상환의 과정을 자산 축적의 기회로 연결하는 구조로, 성실상환

고객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원하겠다는 진 회장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까지 책임지는 금융'을 구체화한 모델이다.

이는 오는 6월 출시될 청년미래적금 등과 연계해 고객이 안정적인 기초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금융 사다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옥동 회장은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느라 정작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신한금융은 이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을 돕는 포용금융을 그룹의 '책임경영'으로 정착시키고, 그런 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

하나금융, 프리미엄 노인요양시설 첫 삽

고양 지축동에... 내년 9월 개소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부지에서 하나금융그룹의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의 계열사이자 하나생명의 100%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주택,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시니어 토탈 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난해 6월 출범했다.

고양시 지축동에 건립될 이번 노인요

양시설은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노후를 위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함께 개인의 신체기능과 인지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하나케어센터 운영 경험에서 축적된 돌봄 노하우를 업그레이드하여 ▲IoT 기반 건강 모니터링 ▲치매 지원·지원 프로그램 ▲병원 및 생활 동행 서비스 등을 통해 단순한 주거를 넘어 노인의 존엄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고품격장기요양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